

온 인류는 한 몸인 고로 너와 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이 됩니다

인간의 생각의 범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각의 범주가 있어서 자신이 경험했던 범주 내에서만 생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를 벗어나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생각 범주 안에 죽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희락과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요 죽지 않는 세계,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세계, 몸이 날아다니던 세계에서 살아보았던 경향이 있는 피가 인간의 몸 속에서 흐르고 있는 고로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피가 있어 그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이 그런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속에 그러한 희열의 세계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음작용을 환상이다 비과학적이다 하면서 인간의 본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한정된 좁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의 범주가 무한대로 바뀌어야 하는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범주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었던 고로 지금까지 사람의 범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의 범주가 변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해야

한정된 생각의 범주를 바꾸어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려면 '나'라는 의식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해 주시는 중에 도달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 내내 한도 없이 사모하면서 그 사모하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시간의 흐름조차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이고 일단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서면 시간의 흐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초초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온전히 말갓 바가 되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생각의 초점이 '나'라고 하는 곳에 쫓기게 되면 온 몸이 무거워지고 은혜 연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모두가 마귀의 생각입니다. 개는 개의 생각을 하고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로 사람인 '나'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 마음의 한계가 없었으며, 우주의 모든 것을 한 눈에 꿰뚫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람은 오늘날과 같이 이런 제약되고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요, 완전한 자유자재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 앞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란 결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생각하는 곳에 이미 그 몸이 날아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모든 만물은 총화된 일체로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몸 속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해서 6천 년간을 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각자각자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승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분신으로 쫓겨져 오늘날의 세계



구세주 조희성님

인류가 되었습니다. 각기 여러 나라, 여러 인종으로 쫓겨져 살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 한 분이 살고 있는 것이지 각자 각자가 따로 동떨어진 개체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화합의 영이므로 열이 하나가 되고 백이 하나가 되고 수억천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가 되라고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의 세계에서만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우리가 다 천국 안의 사람이 되려니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안의 사람이 되는 자격입니다. 화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가 하나가 되

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더러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이 되라는 것을 논하는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사람의 집이 천국이라고 할 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불경과 성경에도 사람이 하나님으로 되는 것을 논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었던고로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성경에는 찢김으로 말미암아 죽고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죽으면 지옥에 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당에 간다는 소리는 어불성설입니다. 고로 구세주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소멸하는 방법과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준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는 비결도 논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원인이 피가 썩음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피가 썩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피가 썩지 않는 고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구 땅 위에는 하나님이 되는 비결, 성령으로 거듭나라고만 하였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을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도 몰랐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누구의 사정도 내 사정으로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극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아름다운 말만 하였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던 고로 서론만 논했고 본론과 결론을 논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 본론과 결론을 논하는 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본론과 결론을 논하는 것을 보아서 마지막 때의 주인공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되는 방법과 길과 이치를 가르쳐 주는 자입니다. 죽지 않는 비결,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비결을 상세히 알려주는 자가 구세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생각이 그릇된 의식('나'라는 존재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고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신(神)이요, 한 피인 고로 우리에겐 너와 내가 없습니다. '너'와 '나'라는 분별의식이 사라지는 날 70억으로 같가리 찢어진 인생은 다시 한 신(神)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6천 년간 갈라졌던 이산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유불선을 합일하는 주인공

이 사람은 단지 말로만 근사하게 아름다운 공약을 들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흠어져 있는 모든 사상과 법칙을 통일하고 실제로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체계로 통치하게 하는 역사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불교는 그 운(運)이 3,000년으로써 끝나고 이제는 생미륵불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유교에서는 정도령이 출현하기를 회고하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구세주 이긴자 출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동일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주인공이 나타난 고로 유불선(儒佛仙)이 다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도 '이슬성신'을 부어주는 자가 구세주로서 나온다고 했습니다(호14:5).

오늘날 이 사람이 집회시 예배를 인도할 때에는 이슬이 이 사람의 눈에서 입에서 한도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영생의 역사가 이곳 한국 땅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영생을 주는 길이며, 이 사람은 영생의 새 학문을 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몸이 점점 영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좌정함으로써 날로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자유율법을 실천함으로써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과 몸이 점점 영생할 수 있는 마음과 몸으로 변화를 입고 있으며 늙은이가 젊어지고 꼭 죽을 사람이 다시 사는 놀라운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신문 제99호 말씀 중에서



나를 제거해 나가는 심정으로 바위를 깨부수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깨어났을 때도 쉬지 않고 다시 바위를 깨부수었다

기운이 없어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때릴 때 팔을 들어 저지를 하든지, 몸을 약간 피하면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원흉인 고로 여자 분에게 그런 못매를 맞고도 오히려 고소하게 여겼다. 이러다 보니 후시나 또 죄를 지을까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겁이 났다.

'뒤돌아 보는 윤관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쉴 틈을 주면 안 된다 하여 밭에 가서 쉴 새 없이 일을 하거나 산을 개간하였던 것이다. 산을 개간할라치면 주변 일대의 잔디밭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땅을 파기 시작한다. 땅을 파려니 바위도 나오고 나무뿌리도 많이 나오게 된다. 고로 나무뿌리 하나를 캐내려면 거짓말 보태 집 한 채 자리를 파야만 그 나무뿌리를 캐낼 수 있었다. 또 바위를 제거하려면 오향마를 가지고 모조리 전부 깨서 부숴야만 된다. 있는 힘을 다해서 부술 때 어떤 바위는 철분이 많이 들어 있는 바위인 지라 잘 깨지지 않는 고로 백 번 정도 쳐야 그대로 그 바위가 금이 가는 그

런 정도로 강한 바위를 부수면서 산을 개간했다. 어떤 바위를 깨는데 한 군데만 200대를 때려 본 적도 있다. 200대를 때리니까 돌이 금이 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또 계속해서 300대, 400대 치니까 그 때에 바위가 부서져 떨어져졌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대머릿대 때려서 부서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비껴갈 텐데 이 사람은 한번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바위야,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어디 해보자" 하고서 계속해서 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그 바위를 전부 가루를 만들어 제거했던 것이다.

가루를 만들 정도로 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칠 수 없는 정도에서도 죽어라 치게 되니까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져버렸던 것이다. 그러다 두 시간 만인가 세 시간 만에 깨어나서 일어나보니까 작업복에 온통 하얗게 소금이 서려 있었다. 사람이 땀을 흘리면 땀에 염분이 많이 있는 고로 그 땀이 마르니까 작업복이 눈이 은 것처럼 하얗게 베어 말라버렸던 것



산을 개간할 때 바위를 부수어 밭을 만들었다

이다. 의식이 들락날락하는 가운데도 중노동을 쉬지 않고 한 것은 '나'라는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으므로 '나'라는 것이 쉬고 싶은 생

각이 나니까 안 쉬고 계속해서 바위를 오향마를 가지고 쳤다.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치고 또 치니 마치 멧돌질을 할 때, 계속하다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넘

기면 자동적으로 멧돌질이 되듯, 오향마질도 그러했으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바위가 다 부서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처럼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개 같은 마귀 새끼가 쉬기는 될 쉬어! 마귀새끼, 너는 죽어야 되는데 쉬면 마귀가 도로 살아나니까 될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혹독하게 짓기기는 심정으로 일하였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입에서 단내가 나면서 정신이 들락날락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버리기 일쑤였다. 몇 시간 뒤에 깨어나 보면 쓰러져 있는 고로 '이 개 같은 마귀새끼가 쓰러졌구나!' 하고 다시 일어나서 해머를 들고 돌을 깨며 개간을 계속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지쳐도 포기를 몰랐고, 그러면서 1초도 놓치지 않고 영모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며 계속 일을 하였다. 그러니 1초 후에 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오직 내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영모님을 고도로 바라보며 밭길 안에서 생사를 건 투쟁을 하는 가운데 아래 찬송가를 즐겨 불렀던 것이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힘한이 길 가도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우리 주님 팔내미사내 손잡아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어머니여 날 불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좋은 이길 전리의 길 주님 오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말기면서 옵니다.

주님이며 그 음성을 항상 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어머니여 날 불드사 주신 소망 이루소서.*